

집유일원화, 집유주체 참여 여부가 관건

전국단위 집유일원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결국 집유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집유주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지난 11월 8일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낙농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영남대 조석진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충남대 박종수 교수, 건국대 정경수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조석진 교수는 집유일원화의 효과로 집·소유 효율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과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집유계획 및 관리와 안정된 배차계획으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집유 및 장거리 수송 억제에 따른 원유품질 향상을 꼽았다.

집유일원화 방안으로는 가공조합, 집유조합, 민간유업체 등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유체계를 광역화시키고 광역별 집유조합을 선정해 집유주체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집유체계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소유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보공개, 유질기준 통일, 원유검사 공영화 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탁량 용도별판매실적,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유체계를 확립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놓고 발표회 참석자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연 현 집유체계에서 가공조합들이 가공과 집유를 분리할 수 있을지와 집유권 통합 후 판매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농가들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수용 여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유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가공원유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집유일원화가 안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연 민간유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조석진 교수는 "낙농제도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이 아

닌 혁명이 필요하며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못할 사료값 DC...유통질서 왜곡

요즘 배합사료업체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환율이 하향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한동안 국제 곡물가의 고공행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배합사료의 유통구조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료가격은 올랐다고 하는데 소비자인 농가 손에 들어오는 가격은 오히려 올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포대당 20원 올랐는데 24원을 더 D/C해 준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걸까. 이는 한마디로 과당경쟁에서 오는 유통질서 왜곡인 것이다.

이 현상을 단순히 보면 농가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업농 이상 규모가 큰 농가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데 반해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는 제 값 다 주고 사료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영세농가는 이래저래 죽을 판인 셈이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축산농가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새 연구결과 토대 의견수렴...최중안 도출

원유기본가격 인상과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의 변화로 인해 기본 원유가격인상 이후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는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201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의 수취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후 원유가격산정체계를 논의기로 한 것이다.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은 현재 낙농진흥회를 비롯해 서

울우유 등 주요 유업체들의 최근 1년간 수취가격 데이터를 넘겨 받아 분석 중에 있다.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나 향후 일정이 나올 전망이다. 데이터 검증을 통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을 놓고 단백질 요소 삽입에 따른 체세포, 세균수 인센티브 변화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는 박종수 교수팀의 데이터를 넘겨 받는 즉시 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산자는 물론 수요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논의돼 왔던 사안인 만큼 어느 방향이던지 쉽게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지속됐던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격체계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값 인상설 '솔솔'

배합사료업체들의 사료값 인상설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11월 이후에 급등한 곡물가로 결재를 해야 할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에는 급등기 때 결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합사료업체들은 대선 이후 두 자리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배합사료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C&F가격기준으로 톤당 8월 21일 400불로 최고점을 찍고 9월 21일 359불로 하향조정되는가 싶더니 11월 22일 현재 다시 377불로 반등했다. 이런 현상은 당초 미국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보다도 작황이 좋아 하향세를 탄 것. 그런데 또 다시 반등하게 된 원인은 밀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5일부터 밀 수출을

금지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두박의 경우는 8월 30일 705불의 정점에서 10월 17일 613불, 11월 22일 576불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 데는 남미지역의 콩 작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파종을 많이 해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5월 24일 1천184원에서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21일에는 1천82원을 기록, 다음날인 22일에는 1천86원을 찍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다행히 운송비는 47~50불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업체는 환율과 운송비의 안정속에서 곡물가의 변동이 있는 만큼 변동폭 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영의 주름살을 펴 수 있을 정도로 사료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육우협, 군납우유 축소 방침에 '강력반발'

군당국이 내년부터 군납우유 축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12월 3일 군납우유 축소 방침을 내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당국이 전국 낙농가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을 할 경우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등 군당국은 지난달 군장병당 1일 1회 250ml인 군납우유 용량을 200ml로 축소하는 대신 망고와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음료 급식횟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농림수산물부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농림수산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건의활동을 집중 전개했고 계획생산체제 하에서 군납우유 축소는 낙농가에 직접적인 생산감축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장병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군납우유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납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현재도 성인 1일 우유 섭취권장량 6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우유함량이 적고, 향료, 색소 등이 첨가된 가공우유를 군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군당국의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군당국이 ‘장병 급양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군급식의 목적을 지시한다면 수입과일 음료를 줄이고 우유용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군당국은 이같은 낙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2015년부터 200㎖로 축소하겠다는 기본방침 아래 연 293회는 백색우유 250㎖를, 연 72회(월 6회)는 가공우유 200㎖를 공급하는 안을 놓고 내부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 원유생산량 53만2천125톤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로 인해 3/4분기 중 원유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누적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2.5%가 증가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의 4/4분기 낙농산업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중 원유 생산량은 53만2천125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55만200톤에 비해 4.3%가 감소했지만 3/4분기까지 누적 생산량은 159만6천64톤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12.5%가 증가한 것이다.

일평균 생산량은 5천825톤으로 전년도 5천179톤에 비해 646톤이 늘어났으며 FMD이전으로 원유 수급이 안정을 보였던 2010년 5천785톤보다 40톤이 늘어났다.

원유 생산량은 FMD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체세포수나 세균수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중 체세포수는 평균은 26만4천개/㎖로 전년동월 대비 2만1천개가 증가했으며 이는 무더위와 태풍피해, 도태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세균수 역시 2만1천개/㎖로 전년동월 대비 5천개가 증가했다. 이처럼 체세포수와 세균수 증가로 인해 1등급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한 때 60%를 넘었던 체세포수 1등급 비율은 9월 현재 37.8%로 감소한 반면 2등급 비율은 44.5%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해 기본원유가 인상과 함께 체세포수 2등급의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인해 분유재고량이 크게 증가했다.

수입량을 합쳐 3/4분기 중 공급량은 87만9천951톤이었으며 수출량을 합친 소비량은 88만8천306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했다.

